

## 독일의 창의적 교육과 행복한 삶



黃炳國 會員(植物病理學)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서양 문화와 선진 과학기술이 급속히 유입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이제 21세기가 되어 한국이 더 나은 행복한 사회,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따르고 싶은 선진복지국가의 모델로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흔히 독일을 꼽는다. 한국과 독일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유사점이 너무 많다. 한국과 독일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타의적 분단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부흥을 일으켰다. 1990년 독일은 평화적으로 동·서독간 통일을 이루었고 정치, 경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 번영하며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 인구는 2019년 현재 통일 독일이 8,300만 명, 통일 한국은 7,700만명(남한 5,170만명; 북한 2,530만명)으로 비슷하다. 인구가 5,000만 이상의 선진국가 중에서 독일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조건이 뛰어나다.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을 통한 경제적 번영과 교육, 의료, 연금, 실업(失業) 고용, 재해 보험 등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보장제도(Sozialversicherung)가 세계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한국의 언론과 사회 매체에서 독일을 여러 분야별로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정치, 복지, 교육제도가 한국인들의 '부러움' 내지는 선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사회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40여 년 동안 독일과 인연을 맺고 있다. 독일 괴팅겐(Göttingen) 대학교(노벨상 수상자 45명 배출)로 박사과정 공부를 위해 1976년 독일로 가서 독신(獨身)으로 1981년까지 대학기숙사에서 독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대학 실험실에서 독일 연구원들과 연구하면서 독일인들의 삶, 생활방식을 직접 체험하였다. 박사학위 취

득 후 독일에서 귀국하여 대학에서 봉직하며 독일에서의 교육, 연구 체험을 한국의 대학교육과 연구에 접목(接木)하려고 노력하였다. 독일 통일 직전 1988~1989년 독일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펠로우(fellow)로서 다시 가족과 함께 괴팅겐대학교에서 연구하면서 독일 사람들의 교육과 삶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그 후 현재에도 괴팅겐 대학교, 함부르크 대학교, 본 대학교 등 여러 독일대학 교수들과 교류하고 있다. 또한 필자의 형제, 자매가 여럿이 독일대학에서 공부하였고 지금도 누나가 독일에서 살고 있어 독일사회의 발전상을 쉽게 접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살면서도 필자는 독일에서 배우고 체험하였던 독일인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보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실제 생활했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독일의 창의적 교육과 행복한 삶'이라는 큰 화두(?)로 여기에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더 나아가서 독일의 교육을 거울삼아 '한국교육의 시행 가능한 개혁방안'을 제안한다.

### 독일인의 인성(국민성)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되며 쉽게 변하기 어렵다. 어떤 사회의 발전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갖추어진 인성(人性)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독일인의 인성 형성에는 독일인의 종교, 즉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 문화를 설명할 때에 유교의 영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사회, 문화를 보려면 기독교의 영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필자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독일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들 독일인들의 생활과 기독교는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하였다.

독일의 기독교는 프랑크 왕국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도입, 전파되었고 신성로마제국 초기까지 크게 융성하였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1483-1546년)의 종교개혁(1517년)으로 로마 가톨릭(Catholic)에서 개신교

(Protestant)가 분리된 이후에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교 간의 격렬한 30년 종교전쟁(1618-1648년)의 역사가 있었다. 이때의 전쟁으로 독일인구가 30%정도 줄어들었다 한다. 현재 독일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로마 가톨릭교 29.9%; 개신교 29.8%)를 신앙으로 갖고 있고, 일부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타 신흥 종교를 믿는다. 최근에는 영국과 동유럽계 이민에 의해 성공회와 동방정교회가 들어와서 독일 기독교 교회의 교파는 다양해지고 있고, 중동의 이슬람권에서의 난민(難民, refugees)의 유입으로 이슬람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주(州)의 국가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은 아니나 기독교 문화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러므로 독일인의 삶과 모든 생활규범은 기독교 문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이나 제도, 국가 공휴일(성 금요일, 부활절, 예수승천일, 오순절, 크리스마스 등), 축제, 가정행사(결혼, 장례 등), 독일사람의 이름(Vorname) 등이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문화 위에 형성된 독일인의 합리성, 신중함, 정확성, 정직성에 의한 신뢰감을 독일인의 일반적 인성으로 꼽는다. 특히 정직하다,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검소하다, 준비성이 철저하다, 시간에 엄격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등이 독일 국민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신뢰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독일인들은 무뚝뚝하고 차가운 인상을 주나 사귀면 정직하고 신뢰감을 주며 서로의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독일을 대표하는 표현은 ‘원리 원칙을 중시 한다’는 것이다. 독일인의 삶, 제도, 생활 방식이 ‘한결같다, 정확하다, 정직하다’는 것을 독일에서 살아보면 바로 느낄 수 있다. 독일인들의 삶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어떠한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좋다고 인정하면 독일 사회 구성원들은 수십년 내지는 백여년을 모두 한결같이 지키고 따른다. 사회보장제도, 정치제도가 그렇고, 교육제도가 그렇다.

## 독일인의 창의적 교육, 올바른 직업관과 행복한 삶

독일이 게르만 민족으로 세계 일류 선진복지국가로 발

전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독특한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 독일의 교육제도와 직업의 기반에는 독일인의 삶속에 깊숙이 스며져 있는 기독교 문화에 연유된 독일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성(국민성)이 내재되어 있다. 독일인은 자연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配慮)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유치원부터 가르친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실천( 행동)하게 하는 교육이다. 독일 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쟁(competition)을 가르치지 않고, 우열을 나누지 않으며, 잘한 사람에게 상(賞)을 주지 않고, 시험점수로 줄을 세워 개인의 적성을 규격화하지 않는다. 독일은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적, 융복합적 교육을 한다. 성적중심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더불어 공부하는 것을 배우면서 학생의 창의적 소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입식 교육과 상대적 평가로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능력을 차별화시키지 않고, 사고하고 쓰고 토론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적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창의적 교육이다. 더 나아가서, 취업한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장인(匠人, Meister)정신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사회인을 길러내는 실용적 교육이다. 독일은 연방정부로 16개 주(州) 정부가 있으며 각 주의 교육문화부가 자치권을 가지고 교육의 자율을 토대로 교육 행정을 주관한다. 독일의 교육은 거북이보다 더 느리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꼭 대학에 가야 한다’, ‘가능하면 일류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사회 인식이 없다. 독일에는 ‘일류학교, 일류대학’이 없다. 독일은 3무(無)의 나라로 사교육비가 없고, 입시지옥이 없으며, 대학등록금이 없다. 젊은이들이 일류학교 졸업여부, 스펙, 그리고 학연, 혈연, 지연을 토대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잠재력, 능력에 따라 취업한다. 독일은 능력 위주의 신뢰사회이다. 이러한 개인을 차별화하지 않는 보편적, 창의적 교육을 받은 독일인들은 사회 모든 직업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최고의 보편적 복지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필자가 보고 느낀 독일 교육은 자율성과 교사(선생)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읽고 외우는 주입식 교육보다 쓰고(writing)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게 하는 자율적 교육 방식이다. 독일 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몇 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하고 발표하며 레포트(Bericht, report)를 쓰면서 그룹공부(Gruppenarbeit, group study)를 하여 서로 소통하며 문제해결 방식을 터득한다. 한국 학생들처럼 머리 싸매고 밤새면서 암기위주로 공부하지 않는다. 독일의 모든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 필기시험(Klausur, written test)이나 구두시험(mündliche Prüfung, oral test)이다. 객관식 시험 방식 보다는 주관식 시험, 구두시험으로 평가한다. 독일사회처럼 교사, 학생, 학부모간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주관식 필기시험이나 구두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이미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로 보낼지 실업학교(Realschule)로 보낼지 학부모와 상담하여 학교 담임선생이 결정하면 모든 학부모들은 불만 없이 이에 따른다. 특히 대학교,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사법)시험에서도 구두시험이 가장 선호하는 평가방법이다. 독일 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가장 잘 평가하는 방법은 구두시험 방법이라고 한다. 말은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두시험에서 시험평가자가 ‘질문(question)’하고 수험자가 ‘응답(answer)함으로서 종합적으로 수험자의 실력(능력)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은 신뢰사회이기 때문에 평가자(교사, 교수 등)의 평가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므로 구두시험 결과에 대해서 수험자가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다. 필자는 독일 유학생생활 동안 모든 평가에서 구두시험을 여러 차례 치루면서 왜 독일에서 이러한 절대적 평가방법을 시행하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구두시험 준비에서는 어떠한 문제(issue)에 대해 기본 원칙을 종합적으로 알아서 평가자에게 설명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구두시험을 기반으로 교육을 받아서 인지 독일인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창의성은 ‘강요된’ 교육, ‘획일화’된 점수 따기 경쟁에서는 결코 얻어지기 어렵다. 독일은 철저히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평준화된 나라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영재교육’이 있기는 하나 알려져 있는 특수 ‘영재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주(州)정부나 시(市)에서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일의 영재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일반지능과 특별 지적 재능, 창의성 등 선천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그 재능을 꽃 피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

어 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Grundschule) 2-4학년의 ‘뛰어난 아이들’(hochbegabt)을 담임선생이 추천하여 1주일에 한번정도 방과 후에 한 시간씩 따로 모여 수업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고 공부하게 한다. 한국처럼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대형 과학고, 외국어고 같은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에는 많은 천재적인 세계적 사상가, 철학자, 과학자, 작곡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창의적 교육제도에서 찾아야한다. 좋은 예로써, 20세기 최고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Einstein, 1879-1955년)은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에 아주 늦게 말을 하여 ‘지진아(遲進兒)’로 평가받았다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 2007, Walter Isaacson 지음; 이덕환 역). 그는 수학과 과학은 잘하였으나 고등학교(Gymnasium)를 다니다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한 후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그 후, 그는 스위스 취리히 공과대학(ETH Zürich)에 응시하여 낙방하였고 재수하여 취리히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의 성적은 중상위권을 맴도는 수준이었다. 만일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이러한 위대한 세계적 물리학자가 되었을까 상상하여 본다.

“연습이 장인(대가)을 만든다(Übung macht den Meister)”는 독일 속담이 있다. 독일 사람들은 자신의 말은 일에 최고가 되려고 묵묵히 열심히 즐기며 행복을 누린다. 그들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지위)에 오르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독일인들은 “좋아하는 직업(Beruf, job)을 가지고 소임(所任)을 다하며 즐겁게 일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는 직업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독일어로 직업(Beruf)이란 말은 ‘berufen’ (불러들이다, 소명을 받다)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인지, 독일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召命意識)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독일에서는 일류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한국과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 하나의 예로써, 필자가 공부하였던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1975년 경부터 Vorbeck씨는 정규직 실험조원(Technische Angestellte)으로 채용되어 40 여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실험실에서 묵묵히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

다. 독일인 개개인들은 겉보기에 뛰어나지 않은 것 같으나 개개인들의 능력이 기본이 튼튼하여 최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본이 튼튼한 개개 독일인이 모여 있는 어느 분야, 어느 단체든 세계 최고의 일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독일 프로축구팀을 보면 쉽게 독일인들의 저력을 알 수 있다. 독일 월드컵 축구팀에는 호나우도(포르투갈), 메시(아르헨티나), 루니(잉글랜드)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없어도 11명 모두 기본이 튼튼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일이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철학, 문학,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 정상에서 있다.

## 독일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제도

독일의 유치원(Kindergarten)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연방정부의 하나로 통일된 제도로 관장하지 않고, 각 주(州)정부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의무교육 기간은 12년이며, 학교의무교육은 9년이다. 최소 9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하고, 상급학교를 진학하든지 혹은 직업교육과정으로 진출하든지 3년을 더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서 독일 전역의 연방주(州)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는 독일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제도의 개괄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치원(4-6세), 초등학교(Grundschule, 4년제), 중·고등교육 단계에는 김나지움(Gymnasium, 일반계 학교, 5-13학년), 레알슐레(Realschule, 실업학교, 5-10학년),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보통학교, 5-10학년), 그리고 위의 3개의 학교를 합쳐 놓은 종합학교(Gesamtschule, 5-10학년) 등이 있다.

독일의 유아교육 기관은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 가정보육시설 등이 있고 주정부 책임으로 운영된다. 모든 아동에 대해 반일제 유치원(Kindergarten, 4-6세)은 취원이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의 유아교육은 철저히 놀이중심교육으로 진행되며 읽기, 쓰기, 셈하기 보다는 인성교육과 생활습관 교육, 친구사귀기 등 사회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개성신장과 전인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고 교육한다. 유치원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유아의 학습을 자극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 실외 공간(놀

이 공간), 단체시설과 보조공간, 아동과 교사를 위한 위생공간, 교사와 학부모와의 상담공간, 체육활동시설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 스스로 하게 하는 자립심 키우기, 자율성이 바탕이 된 교육, 그리고 판단력 키우기, 재능을 찾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아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가정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만 6세가 된 아이들은 9월에 시작하는 초등학교(Grundschule, 6-10세)에 입학한다.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정규수업 과목은 독일어, 수학, 미술, 음악, 체육, 사회,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20~24시간 정도이다. 그밖에 합창, 악기 다루기, 체조나 축구 등과 같은 특별활동 시간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가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학생의 적성에 따라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종합학교)로의 진학을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여 마찰 없이 결정한다. “개인은 어느 직업을 가지든지 자신의 적성에 맞고 즐겁게 일하면서 인생을 향유할 수 있으면 된다”는 독일인들의 기본의식에 기초하고 있어서 초등학교(10세)를 마칠 때 장래의 진로가 거의 결정되는 진학할 상급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초등학교(4학년)를 마친 후에 진로선택을 하지 못한 학생은 종합학교(Gesamtschule)에 입학하여 종합학교 9학년이 시작할 때에 이들 상급학교로 진로를 선택, 공부하여 세 가지 형태(하우프트슐레 졸업, 레알슐레 졸업, 아비투어)중에서 하나의 학교에서 졸업이 가능하다.

김나지움(Gymnasium)은 독일의 중등교육 기관(엘리트 양성)으로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과정에 해당한다. 수업연한은 대개 9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8년이다. 마지막 학년에는 졸업을 앞두고 졸업시험인 동시에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라는 시험을 본다. 김나지움에서는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김나지움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5%가량이다. 일반적으로 김나지움은 공립학교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주(州)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언어·자연과학계열의 이수과목을 보면, 종교/윤리, 독일어, 지리, 역사, 사회,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수학, 정보학/

컴퓨터 과학, 지리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등을 공부하게 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외국어과목에 중점을 두어 영어, 프랑스어, 서반아어, 라틴어 등 4~5가지의 언어를 배울 수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과목을 더 추가해서 이수하게 된다. 김나지움의 거의 전체 교과과정은 필수이며, 고학년에서는 많은 선택 과목을 배운다. 김나지움은 일반적으로 능력 범위의 상위 25~35%를 충족시켜 주어 교육 수준이 높다.

레알슐레 (Realschule)는 6년의 학과 과정을 가지며 대학 교육보다는 직업생활을 일찍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이 레알슐레는 앞으로의 전문직에 필요한 재교육과 상급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레알슐레에서는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실업학교 졸업증서(Mittlere Reife)를 받게 된다. 이 증서를 가진 사람은 대학 진학은 못하지만 일반교양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업훈련을 받은 후에 사무·행정직(은행원, 경찰, 공무원, 비서 등)이나 이공계 기능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레알슐레 졸업 후 김나지움에 편입하여 아비투어를 할 수도 있다.

하웁트슐레 (Hauptschule)는 이론적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유형의 직업을 가질 학생들에게 인격적 기본 소양과 기술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8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실제적 실습을 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장래 직업의 구체적 사항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노동(Arbeit), 경제(Wirtschaft), 기술(Technik)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웁트슐레 (Hauptschule)의 과정을 수료하고 합격하면 하웁트슐레 졸업증서(Hauptschulabschluss)를 받게 되는데, 이 증서는 직업을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는 증서이다. 하웁트슐레 졸업 후 레알슐레로 편입하여 실업학교 졸업과정(Mittlere Reife)을 할 수 있다.

레알슐레와 하웁트슐레를 졸업한 학생들은 직업학교(Berufsschule),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등에서 직업교육(Berufsausbildung)을 받는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1~2일 이들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산업체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직업훈련생으로 3년간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면 숙련공(Geselle)이 된다. 이

들이 다년간 경험을 쌓은 후에 전문학교(Fachschule)에 진학하여 기술전문가(장인)(Meister)가 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독일의 대학입시

독일의 일반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의 상급반(11학년-13학년)이 되면 교과목마다 기초코스(basic course)와 심화코스(intensive course) 두 과정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다. 기초코스와 심화코스의 과목별 성적은 매 학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따라 산출된다. 시험 결과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등급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이 평점등급은 다시 0~15점까지의 점수로 환산한다. 이들 교과성적(내신)은 총 600점이며 대학입학자격시험 아비투어(Abitur)시험 총 300점에 합산시켜서 총 900점 만점이다.

독일 김나지움(Gymnasium) 고등학생들은 대학(university)가기 위해서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아비투어(Abitur)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아비투어 시험은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다. 아비투어시험은 주(州)정부에서 시행하며 '고등학교(김나지움) 졸업시험'으로 12~13학년에 볼 수 있는 대학입학을 위한 필수자격시험이다. 아비투어시험에서 3 영역(언어, 문학, 예술; 사회; 수학, 과학, 기술)에서 4~5과목을 선택하여 필기시험(written test, 에세이형태)과 구두시험(oral test)으로 4~5월 사이에 며칠 간격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이 시행되며 주(州)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각 기초수준 필기시험은 3시간, 고급수준시험은 3.5 시간, 그리고 구두시험은 20분 소요된다. 독일대학의 입시에 반영하는 성적은 고등학교(김나지움) 교과성적(내신)(600점)과 위에 기술한 아비투어(Abitur) 성적(300점)을 합하여 총점을 1~6등급(grade)으로 환산된다. 아비투어 등급(grade)은 1(sehr gut, very good), 2(gut, good), 3(befriedigend, satisfactory), 4(ausreichend, sufficient), 5(poor)(fail), 6(very poor)(fail)이며, 1~4등급은 합격, 그 이하(5, 6등급)는 불합격이다. 아비투어 1등급(grade)은 총점 823~900점에 해당된다. 아비투어 수험생중 약 12~30%가 1.0~1.9사이의 등급에 속하

며 0.2~3%만이 가장 좋은 등급 1.0을 취득하고 있다. 아비투어 증서(Abitur certificates)는 고등학교졸업증서와 대학입학자격증서로서 역할한다. 이 아비투어에서 받은 점수는 평생 가게 되며 재수라는 시스템이 없다. 이 아비투어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은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 대학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이 자격(증)은 평생 유효하다. 그러나 아비투어를 하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아비투어 합격증서를 받고 졸업하는 학생은 2010년에 49.0% 이었고, 아비투어를 취득하는 학생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비투어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할 때도 아비투어 합격증서는 하나의 높은 수준의 자격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레알슐레 졸업증서(Realschulabschluss)와 하웁트슐레 졸업증서(Hauptschulabschluss)의 소지자는 대학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졸업증서 소지자도 '직업학교(Berufsschule)'를 졸업한 후 '직업고등학교(Berufsoberschule)'에 진학하여 졸업하거나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를 졸업하면 '아비투어(Abitur)'나 '전문대학입학자격 아비투어(Fachabitur)'를 취득할 수 있다. 2000년 독일의 취업자중에 하웁트슐레 졸업생(Hauptschulabschluss) 54.9%, 레알슐레 졸업생(Realschulabschluss) 34.1%, 아비투어(Abitur) 11.0%를 차지하였다. 이 독일 취업률에서 아비투어를 소지하고 바로 취업(就業)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대학들은 평준화, 그리고 특성화되어 있어 명문대의 개념이 없고 대학간 차이(우수성)가 없다. 따라서 인기있는 특정대학이나 학과에 학생들이 집중 지원하는 한국과 같은 현상이 독일 대학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비투어 성적(1~4 등급)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의학, 약학, 법학, 경영학, 심리학, 실험실습이 필요한 인기 자연계 학과 등은 정원제한(Numerus Clausus)이 있어 경쟁이 있고 높은 아비투어 성적을 받은 학생만이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원제한 학과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의 특성, 교수 등의 여건이 좋은 대학의 학과를 찾아 입학한다. 따라서 정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서는 지원학생(아비투어 소지)을 아비투어 성적에 관계없이 모두 수용한다.

## 독일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교육

독일대학은 전통적으로 학교 캠퍼스(campus)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학 건물들이 도시전체에 산재(散在)되어 있다. 아비투어(Abitur)를 합격하면 독일대학의 입학은 어렵지 않으나 입학 후에 졸업은 어렵다.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낙오한다. 독일대학에서는 공식적인 입학식과 졸업식이 없다.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지 않으며 강의 출석여부는 자유다. 독일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보통 13년을 공부하는데 이는 한국이나 미국의 12년보다 1년이 길다. 따라서 독일대학에는 교양과정이 없고 대학입학 후 바로 전공분야의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다. 한국대학의 1학년의 교양교육을 독일에서는 고교교육과정에서 완료하므로 독일대학에서는 전공분야 교육만 전담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독일 대학의 모든 학생성적 평가로는 구두시험(mündliche Prüfung, oral test)을 가장 선호하며 필기시험(Klausur, written test), 발표평가(presentation), 과목 레포트(course report) 등으로 평가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시스템과 다른 독일만의 독자적 학위프로그램인 마기스터 (Magister, 인문과학분야 학위)와 디플롬 (Diplom, 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 학위)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석사학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유럽(EU)의 고등교육 개혁(Bologna-Process)에 따라 독일의 학위과정도 다른 유럽나라 및 미국과 비교 가능한 학제 즉, 학부(Bachelor, 3년), 석사(Master, 1-2년), 박사 (Promotion, Ph.D., 3-5년)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 일부학과(의학과, 법학과, 신학과 등)는 여전히 전통적인 학제인 학·석사 통합과정(Bachelor/Master)인 마기스터 (Magister, 5년)나 디플롬(Diplom, 4-5년)을 고수하고 있다. 분자생물학, 기초의학 등 자연계 분야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M.Sc./Ph.D., 4-5년)을 운영하기도 한다. 학위형식은 영·미식으로 바뀌었으나, 그 밖의 내용들은 과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독일대학 학부(Bachelor, 3년)과정은 넓은 범위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의 강의(Vorlesung, lecture), 세미나(Seminar), 연습(Übung), 실험실습

(Praktikum, 자연과학분야)을 수강하여 구두시험(mündliche Prüfung), 필기시험(Klausur)을 치루거나 과목 레포트(Kursbericht, course report)를 제출하고 학사논문(Bachelor thesis)을 작성하여 학과(Institut, Department)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數)의 학점[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ECTS) credits (C)]을 취득해야 학사학위(Bachelor degree)를 받는다. 독일대학의 석사(Master, 1-2년)과정에서는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강의(Vorlesung), 세미나, 연습(Übung), 실험실습(Praktikum, 자연과학분야)에서 일정 수(數)의 학점[credit (C)]을 받는다. 졸업학기에 석사논문(Master thesis)을 작성, 제출 후에 평가받고 석사 콜로퀴움(Master colloquium)에서 발표(presentation) 평가를 통과해야 석사학위(Master degree)를 취득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독일대학의 자연계 학과 석사 과정생은 학위 과정 3학기에 전공분야 관련 기업체, 공장, 연구소 등에서 현장실습(internship, 6주 정도, 학점 부여)을 수행해야 한다. 자연계 석사 과정생은 대체로 전공분야의 교수 실험실에서 4학기 때에 6개월~1년 실험을 수행하여 석사논문(Master thesis)을 쓰며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되면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사범대학, 의과·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의 경우 학사·석사학위(Bachelor/Master degree)를 받고 졸업할 때 교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Staatsexamen)을 통과해야 한다.

독일대학의 박사과정(Promotion, Ph.D., 3~5년)에서는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야할 의무 교과과정(course work)은 없다. 하지만 발표와 토론위주의 세미나, 연습(Übung), 콜로퀴움(colloquium), 워크숍(workshops: 통계, 연구방법론, 프로젝트 설계, 운영 전략 등), 심포지움(symposium)등에 참여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주로 지도교수(Doktorvater, supervisor)의 연구프로젝트에 따라 연구(실험) 중심으로 운영되며 매년 진행되는 연구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report)를 작성, 제출한다. 자연계 분야에서는 지도교수의 실험실 모임(Laboratory meeting)에 참여하여 실험결과에 대해 토의한다. 독일대학의 학과는 연구 분야가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의 구성 교수의 연구방향에 따라 석사, 박사과정의 운영, 이수 요구사항이 매우 다르다. 박사과정생은 연구

(실험)하여 지도교수가 평가, 연구(실험)결과가 일정수준에 도달되었을 때에 박사논문(Dissertation, Ph.D thesis)을 작성, 논문심사위원회(Dissertation committee)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을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합격 평가를 받고, 논문에 대한 구두시험(mündliche Prüfung)에서 합격해야 박사학위(Doctorate, Ph.D. degree)를 받게 된다.

독일 대학에는 공식적인 학사, 석사, 박사학위 졸업식이 따로 없다. 흥미롭게도 독일 괴팅겐(Göttingen)대학에서는 박사논문구두시험에서 합격한 날에 친구, 지인, 그리고 학과 후배 박사과정생들(Doktoranden)과 함께 꽃과 나무로 장식한 트럭(마차)을 타고 괴팅겐 시청(Rathaus, City Hall)앞 광장까지 가서, 종이와 꽃으로 제작한 박사모(帽)를 쓴 새내기 박사(Doktor)가 시청앞 광장의 분수대에서 서 있는 거위를 안고 있는 소녀상(겐제리젤, Gänseliesel)에 입맞춤하는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통의식이 있다 (사진 참조). 이 거위소녀 겐제리젤은 100 여년 동안 수많은 박사들과 입맞춤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독일대학에는 공식적인 졸업식은 없지만 이러한 소박한 졸업식(?) 전통을 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다.



거위소녀상(Gänseliesel)에 입맞춤하는 괴팅겐대학의 새내기 박사

### 독일대학의 평준화, 특성화와 교수지위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 이외에도 300~6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대학이 독일에 많다. 1871년 독일이 제국으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독일의 각 연방주(州)에 있는 대학들 간에 우열의 차이가 있었다. 독일인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

(von Bismarck-Schönhausen, 1815~1898년; 1871~1890년 통일 독일제국의 초대수상)는 독일을 통일한 후 재상 재임동안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 산재보험, 노인복지법 등)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독일인 모두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도록 연방주(州)정부가 대학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독일 대학들을 평준화시켰다. 그 이후로 현재 독일에는 일류대학, 이류대학 등과 같은 대학간에 우열의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문대의 개념이 없다. 단지, 전공분야별로 어떤 대학, 어떤 학과가 유명하다 정도다. 따라서 대학 간의 우수성에 차이가 없지만, 대학 학과가 특성화되어 특화 발전하고 있다. 가고 싶은 전공학과와 강의를 듣고 싶은 교수를 골라 대학을 선택한다. 현재 독일 대학들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주립대학이고 등록금을 받지 않으며 대학교육행정을 주(州)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독일대학의 평준화로 독일인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대도시로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지 않는다. 도시에 직장이 있어도 도시 교외에서 거주하며 행복한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도시 중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자들이 아니다. 따라서 독일 전 지역이 특별한 지역균형 발전계획 없이도 도시와 농촌이 스스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지역간, 도·농간 평준화되어 독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독일 대학에는 한 개 학과(Department, Institut, Lehrstuhl, Abteilung)에 정년보장 정규직 강사(Dozent, lecturer)와 연구원(Wissenschaftliche Mitarbeiter)은 많은 수가 있지만 정교수(full professor)는 소수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교수가 되려고 박사학위 취득 후에 연구능력이 출중한 소수 인원만이 교수자격논문과정인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 5~10년)을 거친다. 그 후에 이들이 대학에 교수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교수초빙공고에 지원하여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평균나이 40대 초, 중반에 정교수가 된다. 동일 대학 출신은 교수자격을 갖추어도 같은 대학에 교수로 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 대학교에서 교수로 수년 봉직하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모교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유럽통합(EU)으로 볼로냐 협약(Bologna-Process)에 따라 2005년 이후 대학개혁 일환으로 주니어교수(Junior Professor, 미국의 조교수에 해당) 제도가 독일대

학에 도입되었다. 젊고 유능한 주니어교수는 정규직이 아니며 계약직(6년)이나 강의와 연구를 하고 박사 과정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후에 하빌리타치온처럼 교수임용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주니어교수는 독일대학의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인정받지 않아 하빌리타치온을 병행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만족스럽게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 교수수가 적어서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교수되기 매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 연구소, 기업체, 공무원, 정치가, 중·고등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이처럼 독일대학에 교수의 수가 적다보니 교수의 연구방향에 따라 학과가 특성화된다. 독일대학 교수들은 학과내의 동료교수들과 중복되지 않은 특성화된 상이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연구에 지장을 주는 학교행정을 원하지 않아 학장, 총장직이 선호의 대상이 아니다. 단과대학의 학장 보직은 통상적으로 젊은 신임교수들이 순환적으로 맡는다. 그러므로 학생들도 자기 대학의 학장, 총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며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교수라는 직업은 독일 사회에서 신부, 목사 등의 성직자와 함께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독일의 정교수는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들이다. 독일에서는 교수하다가 시류에 편승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다른 직업으로 이적(移籍)하는 것을 보기가 드물다. 독일교수들은 '교수가 최고의 직분'으로 생각하며 소명 의식을 갖고 죽을 때까지 연구만 전념한다.

## 한국 교육의 시행 가능한 개혁방안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강하다. 교육에서 삶의 철학과 방향을 얻기 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출세(좋은 직장)를 하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인들의 평범한 인생관이나 생활관이다. 자기 내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 남과 경쟁하여 남을 이겨서 성공(출세)하는 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평가한다. 진정한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현실이다.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한국은 미국식 대학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세분화된 학과 수준에서 집약적으로 전문교육을 함으로써 각 분야의 인재를 빠른 시일 내로 양성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다. 하지만 수월성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한국의 교육제도로는 이제 한국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창의적이고 더불어 살며 남을 배려하는 젊은이들을 양성하기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정치계나 교육계에서 교육정책의 전문가들이 진정한 한국 교육제도의 개혁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하며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단기적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것을 보고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정말로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국 교육의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현재의 한국교육제도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시험방법으로 정량화(점수화)된 성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서열화시켜서는 행복한 삶,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이제 미래 한국의 젊은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냉철히 판단하여 앞에 놓인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창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가 제의하고 싶은 가능한 한국인의 인성(국민성) 교육으로는 “거짓이 없는 사회, 거짓말하지 않는 신뢰사회 만들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창한다. 국민개개인들이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불신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훌륭한 교육제도도 허구에 불과하다.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安昌浩, 1878~1938년, 교육개혁가, 독립운동가)은 일찍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의 거짓, 사기, 부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거짓 망국론’을 말씀하셨다. 그는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힘있게 외치셨다.

한국의 교육제도의 근원적인 개편안으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성적평가시험, 대학수능시험, 그리고 취직시험, 공무원시험 모든 시험제도를 객관식(3~5지선다형) 시험제도에서 창의적 교육의 원천이 되는 주관식 필기시험(written test, essay식 서술형)과 구두시험(oral test)제도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객관식 시험방법이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으로 생각한다. 독일의 교육자들이

왜 객관식 평가방법이 아니고, 주관식 평가방법인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등을 가장 선호하여 모든 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관식 평가 방법과 구두시험방법도 평가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가장 수험자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된다. 필자가 독일 유학동안 독일학생들과 함께 많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보고 경험했지만 시험결과에 대해 불평하는 독일학생을 본적이 없다. 독일의 교수, 학생 모두 구두시험만큼 학생을 창의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한국 대학에서 시행 가능한 대학교육개혁방안을 여기에서 제안하려 한다. 한국의 중앙정부에 있는 교육부의 대학행정을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시설, 예산, 교수임용 등 모든 대학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 국립(National) 대학을 도립(State)이나 시립 대학으로 전환(국립National이란 말을 제거)시켜 광역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세계 선진국가에는 국립(National)대학이 없으며 주립(State)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들이 거주 지역의 도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대학등록금을 전액 감면하여 주고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에게는 지자체 소재(所在) 기업의 취업할당을 부여한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서울중심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엘리트양성교육을 광역지자체 도립대에 분산,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위치하는 대표도립(State), 시립대학이 세계 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지방 국립대가 도립대학화됨으로써 광역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립대의 위상이 격상되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출신 향우(鄕友)들의 애향심을 불러 일으켜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수한 젊은이들이 서울보다 자신이 성장한 지역의 세계 일류대학으로 발전하는 도립, 시립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없이도 지역균형발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가의 수많은 주립대학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며 이들 나라의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 맺는 말-독일인의 교육과 삶을 배우자

독일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좋은 덕목은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고 배려하며 근면하고 정직하게 신뢰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해방이후 75년동안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남북통일을 그렇게 요란하게 외치고 있지만 남북이 분단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러나 독일은 1945년 동서독이 분단되고 나서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1990년 평화적 통일이 되었다. 그 후, 독일인들은 동·서독간의 이념, 계층 간 갈등, 부의 편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류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독일이 유럽에서 선진복지국가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가장 살기 좋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독특한 독일인의 인성(국민성)에 바탕을 둔 교육제도(지방정부 주도의 공교육)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유학과 현재까지 독일 대학교수들과의 교류동안 많이 들은 이야기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독일이 많은 분야에서 미국화(amerikanisieren) 되었으나 독일 고유의 교육제도와 문화정책만큼은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에서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100여 년 전의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근간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단일민족, 분단국가, 인구수, 면적, 기후조건(온대지방) 등 서로 닮은 점이 너무 많다. 특히 한민족과 게르만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단일민족은 유전적으로 균일(uniformed)하여 개인 간에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에서 수월성 교육, 영재교육 등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개인의 능력개발보다는 이익집단을 만들어 분쟁과 격차를 조장하여 파벌만 만들지 창의성을 키울 수 없다. 수많은 인종(race)으로 구성된 이민 국가이며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수월성 교육으로 다양한 인종 간에 경쟁을 통해 창의성을 키워 사회발전을 일으켜 세계 최강의 부자의 나라, 선진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보편적 복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선진복지국가는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규모, 인종

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다르다. 이제 중진국인 한국은 미국과 같은 빈부격차가 크지만 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선진국가로 갈 것인지, 독일처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있다.

한국은 해방 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수입하여 1948년 정부수립 후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과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었다.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지역적인 교육개혁이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교육제도는 한국사회에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회 양극화,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의 많은 문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교육제도로서는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없으며 한국이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한국의 교육행정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선거만 의식하며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비애 속에서 한국이 독일처럼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에 알맞은 선진국형 교육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는 현재 실현 가능한 몇 가지 한국의 교육개혁안을 여기 기고문에서 제안한다. 한국의 교육체계를 주입식(암기식) 교육과 경쟁에만 집중하는 줄 세우기식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쓰고 말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창의적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의 초, 중고등, 대학교육과 모든 취직 시험제도에서 객관식 평가(시험)방법을 폐기하고 주관식 평가방법, 즉 필기시험(written test, 서술형, 에세이형)과 구두시험(oral test)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대학행정을 광역지자체에 이관하고 특히, 국립지방대학을 시립 및 도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미국이나 독일의 주립대학 수준의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키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에 있는 교육부는 큰 틀의 교육정책만 관장하고 광역지자체에 교육문화부를 설치하여 세부적 교육, 문화행정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지방(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어 살기 좋고 행복한 풍요로운 한국사회가 도래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평생, 대학 교육과 연구에 몸담고 살아오며 항상 느끼고 말하고 싶었던 필자의 보잘 것 없는 이 논고가 한국의 미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